

# 중년기 성인들이 인지하는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 분석: 생태학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The Research on the Ecological Influential Factors of the Perceived Quality of Life  
among the Middle Aged Adults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족전공  
임 소 진\*\*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어 성 연\*\*\*

Family Studies Graduate Program, Chung-Ang University  
M.S. So Jin Lim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ersity  
Ph.D. Seongyeon Auh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분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 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chanism involved in predicting the Quality of Life (QOL) of middle-aged Koreans. The QOL was measured by integrating life satisfaction indicators. To accomplish this, a survey data set was drawn from a convenient sample of 670 individuals during the period of January and February 2011.

To differentiate the influences from the different life domain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s were attempted. In our results, the SES indicators, personal mental health,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이며 2011년도 가정학회와 가족자원경영학회가 공동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된 논문임.

\*\* 주저자: 임소진(cfj1n@cau.ac.kr)

\*\*\* 교신저자: 어성연(sauh@cau.ac.kr)

physical health, social capital resources from family as well as job places, perceived local government services, and the current living conditions to determine QOL, explained 55% of the total variance.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e complex mechanisms that explain QOL in terms of ecological predictors.

**Key Words** : 삶의 질 QOL (Quality of Life), 중년기 Middle Aged Adults, 베이비부머세대 Baby Boomers, 생태학적 이론 Ecological Theory.

## I. 서론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현재 피라미드형에서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진행 중이다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Data Base, 2010).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의 큰 특성은 전체인구 구조에서 차지하는 두터운 중·노년층인구의 비율에 있다. 이처럼 중·노년층이 두터워진 현상은 전후 출생한 베이비부머들이 중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1차 베이비부머 인구는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U.S. Census Bureau Internal Data Base, 2010) 2차 베이비부머는 1차 베이비부머보다 수적으로 더욱 많아져 전체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05) 이들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는 20년 후의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규모가 큰 이들 집단이 노령계층으로 전환되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슈퍼고령화(super-aged society) 사회로의 진입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년기는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은퇴를 준비해야

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안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Palmore & Luikart, 1972). 특히 우리나라 중년기 남녀들의 가치관에는 유교적 잔재가 남아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4.19 민주화 운동, 5.16 군사쿠데타, 그리고 유신독재정권 등 격동의 한국사회에서의 자유 민주화와 개인주의 사회로서의 변화를 성인기에 경험한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은 유교적 효(孝)문화의 영향으로 자신들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여기는 반면에 개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성장한 자녀세대 사이에 끼어 다른 세대와의 괴리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중년들만의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또한 중년들은 과거세대와는 다른 욕구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또한 전체인구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년들의 삶의 질은 사회문제나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중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중년기에 대한 명확한 범위 구분은 쉽지 않아 학자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오늘날 자

1) 중년기 범위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다양한데 예로 Erikson(1963) 40~60세, Vincent 35~55세, Havighurst 35~60세, 윤진 (1983) 직종에 따라 다른 분류 육체노동 35-55세, 관리직 40-65세, Lee, Shin, Chong, Shin과 Kim(2001) 40~64세(박형숙·김상금·조규영, 2003), 그리고 가장 최근 연구에서는 안현선 외(2009) 35세-65세로 규정되고 있다.

녀의 늦은 초혼과 만혼현상으로 중년기를 보내는 기간이 늘어가게 되는 현상 그리고 신노년층의 삶의 방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윤진의 전문직에 대한 정의 그리고 최근의 안현선 등(2009)의 연구의 구분과 발맞추어 중년기를 40세에서 64세로 규정한다. 이처럼 인생에서 중년기가 길어지고 있으며 중년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를 살펴보면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중년기 여성만을 연구하거나(김명소·성은현·김혜원, 1999; 신경림·양진향, 2003; 이기영, 1984) 혹은 농촌거주 중년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박옥임·김정숙·정영해, 2004) 등, 대상자의 성별이나 거주지역에 제한적으로 접근한 연구들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건강 상태나 정서 반응 등 한 영역에만 초점을 둔 연구들(김미령, 2006; 김영범·박준식, 2006; 김주희·김정현, 1998; 노병일·모선희, 2007; 서병숙·이현, 1995; 이영휘, 2002)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중년기 성인남녀들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각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중년 성인남녀들의 현재 삶의 질 수준과 이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의 삶의 질과 연관된 복잡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이 필요한데, 여기에 적합한 이론이 바로 생태체계 이론이다. 특히 인간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주체로 보는 관점에서의 시도는 (Auh & Cook, 2009; Bubolz, Eicher, Everse, & Sontag, 1980; 이기영, 1984; 박미석, 1996)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선행연구에서의 제한점들과 우리나라 중년 성인남녀들의 특성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측면에 대한 연구

와 개인-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고려한 삶의 질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시킨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년 성인남녀 스스로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과 삶의 질 관련 변인들에 따라 어떻게 삶의 질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지와 관련 변인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년 성인남녀들의 삶의 질의 관련 변인들은 Auh와 Cook (2009)에서와 같이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삶의 영역들(Life Domains)에서 찾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 성인남녀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이해와 이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인간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이 개인의 주관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삶의 영역들을 우울감과 주관적 신체건강을 포함하는 개인영역, 가족구성원 간의 일상적 친밀감과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하는 가족영역, 직장생활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을 포함하는 사회영역, 지역사회만족도와 지방자치단체서비스를 포함하는 외부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이 중년 성인남녀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중년 성인남녀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년 성인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는 중년 성인남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영역들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해줌으로써 개인의 영역은 물론 개인이 속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삶에 질의 향상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가능성이 있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생태체계이론

생태체계이론은 생태학(ecology)과 일반체계이론(general system theory)을 통합한 이론이다. 일반체계이론은 인간을 통합된 하나의 체계로 간주하며 인간을 신체적·심리적·사회적인 측면에서 각각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고 통합된 전체로 기능하는 것으로 본다. 다른 이론들이 인간의 행동의 부분들만을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전체(wholes)’를 다룬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이근홍, 2006). 체계이론이 구조에 초점을 두고 복잡한 환경 속 체계들이 어떻게 변화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면 생태학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relationship)와 상호작용과 교류(transaction)에 초점을 두고 있다.

Bronfenbrenner(1979)는 성장하고 활동하는 인간과 그들의 환경 간에 일어나는 생애과정 전체에 걸친 발달 및 상호작용에 관해 다루며 개인을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체계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보완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제시하였다(Thomas, 1996). 따라서 생태체계이론은 일반체계이론과 생태학을 접목한 것으로써 개인은 가족, 친구, 직장, 지역사회만족도, 지방자치단체서비스와 같은 환경 안에 있는 다양한 체계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이다.

생태체계이론에 입각하여 체계를 세분화한 연구는 다양하게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학자들마다 다르다. 먼저 Bubolz 외(1980)와 Daling(1987; 정현숙, 2007)은 공통적으로 환경을 구분하고 있다. 1)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NE]), 2)인간이 건설한 환경(human constructed environment[HCE]), 3)인간행동환경(human behavioral environment[HBE]). 자연환경은 공간·시간, 공기, 물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자원을 제공해 주는 환경을 말하고, 인간이

건설한 환경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로, 건물뿐만 아니라 교육, 종교, 법, 언어 등 물리적 생물학적 환경을 수정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환경이다. 인간 행동환경은 다음 체계 수준으로 확장되기 위해 꼭 필요한 환경으로 인간의 행동을 구성하는 사회적 패턴이나 인간의 정서와 사랑, 관계와 같은 정서적 욕구 및 감성이 포함된다.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모델은 다음과 같다. 가장 작은 단위인 개인의 역할 및 활동과 같은 대인관계 유형인 미시체계(microsystem)와 두 가지 이상의 미시체계들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중간체계(mesosystem),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중간체계를 포함하는 외적체계(exosystem), 마지막으로 종교나 법, 민족이나 국가의 특정 이념 및 문화에서 강조되는 철학 등을 포함하는 거시체계(macrosystem)로 모두 네 가지로 구분한다(Thomas, 1996). 이처럼, 개인은 개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 가족과 친구관계,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이 다양한 체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생태체계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개인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체계와 개인과 환경 양자 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보완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의 결과가 모든 체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Thomas, 1996).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면 생태체계이론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의 관계를 확장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체계들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이론을 바탕으로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체계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아야 개인의 삶을 평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2. 삶의 질의 정의

초반의 삶의 질 연구는 교육, 경제적인 생활수준, 평균 소득 등 객관적인 측면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지표운동을 통해 시작되었다. 삶의 질에 대한 양적 비교 연구는 UN이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각국과 지역들 간의 비교를 위한 사회지표 체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각국과 지역들 간의 객관적인 지표들에서 개인으로 초점이 변한 것은 양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며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초반의 삶의 질 연구에서 이루어졌던 건강, 수명, 개인당 평균소득(GNP)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가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지 못하며, 주관적 측면에서 삶의 질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1976; Costa & McCrae, 1980; Diener, 1984; Diener & Suh, 1997; Matt & Dean, 1993; Myers & Diener, 1995; Okun, Oling & Cohn, 1990; Smith, 1979; Zautra, 1983; Zautra & Reich, 1983). 미시간 대학의 사회연구협회(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에 Agus Campbell과 그의 동료들은 경제와 사회 지표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Campbell, Convers & Rodger, 1976; 어성연, 2005). 삶의 질이란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복잡한 개인의 삶을 측정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삶의 질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건강(Rejeski & Mihalko, 2001; 김정연·이석구·이성국, 2010), 자아존중감(황미구·김은주, 2008)이나 우울(Demura & Sato, 2003), 종교(전영자·박경란, 2006) 등 한 가지 요인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자한 연구들은 총체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삶의 질을 측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삶의 질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예를 들어, 90년대의 삶의 질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를 검토한 Schallock(2000)은 학자들이 점차 삶의 질이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한석태, 2008). 그 밖에도 Bowling과 Gabriel(2004), Cummins, Eckersley, Pallant, Vugt 와 Misajon(2003), Kreitler와 Kreitler(2006), 등의 학자들과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과 김애순(1998), 최혜지와 이영분(2006), 한형수(2004, 2008)등이 삶에 질에 대한 다차원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어성연(2005)은 “많은 다른 요인들이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p207)고 밝혀 삶의 질의 다차원성을 설명하고 있으며(어성연, 2005), 이러한 연구들보다 더 진보적인 제안으로 Diner와 Suh(1997)는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환경 외에도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삶의 질을 연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반향으로 Auh와 Cook(2009)은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소들이 어떠한 역동성을 가지고 주관적 삶의 질을 예측하는지를 시연하기도 하였다. 즉, 삶의 질은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을 반영하되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와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초점을 둔 총체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 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함께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을 배제하지 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환경의 영향 측면까지 시야를 넓혀 살펴본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을 개인이 삶 전반에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보고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개인영역, 가족영역, 사회영역, 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도록

한다. 또한 그 환경들과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 전략을 가지도록 한다.

### 3. 삶의 질 관련변인

#### 1) 개인영역

##### (1) 주관적 신체건강

신체적 특성과 삶의 질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신체적 건강 수준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된다. Okun, Stook, Haring과 Wintter(1984)는 건강할수록 자신의 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Brief et al., 1993).

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총 만성 질병 수나, 건강행위실천지수(HPI),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등이며 주관적인 건강평가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이승미, 2002). Larson(1978)의 연구에서, 건강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제시하고 있으며(Brief et al., 1993), Zautra와 Hempel(1984)는 객관적 판단하는 것보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건강이 삶의 질과 더욱 강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Brief et al., 1993). 이와 같이, 객관적인 건강보다 본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Knapp, 1976; Lawton, 1991; 박은숙·김순자·김소인·전영자·이평숙·김행자 외, 1998).

실제로 Palmore과 Luikart(1972), Meadow 외(1992)는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를 주관적 건강상태라고 보고하고 있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연구한 Jurakić, Pedišić과 Greblo(2010)의 연구에서도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주관적 건강 수준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이 객관적 건강보다 삶의 만족도의 결과와 더 강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Brief et al., 1993; Diener, 1984; Rejeski & Mihalko, 2001, ; Palmore & Luikart, 1972).

##### (2) 우울감

노화 과정이 시작되고 시기적으로 상실(i.e., 정리해고, 명예퇴직, 건강상의 악화, 가까운 사람의 죽음 등)을 겪기 시작하는 중년들은 우울을 경험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Wada 등(2004)은 우울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는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보다 느끼는 사람의 삶의 질이 더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Murata, Kondo, Hirai, Ichida & Ojima, 2008). 김기정과 표갑수(2008)는 우울감 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질은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 외에도 최연희(2004), 김혜령(2007)의 연구에서도 우울이 삶의 질을 설명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울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많이 연구되었고, 우울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삶의 질 외에도 신체적인 건강이나 다른 요인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Silveira & Ebrahim, 1998).

#### 2) 가족영역

##### (1) 가족구성원 간의 일상적 친밀감 (Family Ritual)

Bossard와 Boll(1950)에 따르면 가족구성원 간의 일상적 친밀감(이하 Family Ritual)이란,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반복적이며 가족과 공동으로 행해지는 활동이다(이기숙, 2003). Wolin과 Bennett(1984)는 Family Ritual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i.e., 1) 유대인들의 기념일인 유월절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가족 명절(Family Celebration)이라고 하며, 2) 가족만의 기

념일이나 특별한 가족들만의 전통인 경조사(Family Tradition), 3)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 끼리의 인사 등 일상 속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가족들이 의식적으로 계획한 정형화된 일상(Pattern Routine)이다. Family Ritual은 스트레스와 같은 고위험군의 조건들로부터 정신적인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며, 과도기를 안정적이게 보내도록 도와주기도 한다(Bennett, Wolin, Reiss & Teitelbaum, 1987).

Ryff와 Heidrich(1997)는 중년에게 가족은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Family Ritual이 개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Family Ritual이 가족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Family Ritual에 대해서 밝혀진 연구는 미미하며 family Ritual과 삶의 질에 대해서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Pattern routine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어 Family Ritual과 삶의 질의 관계를 연구해 보도록 한다.

### (2) 부모자녀관계

석말숙(2004), 임주영과 전귀연(2003), 윤현숙과 허소영(2007)의 연구에 의하면 삶의 질은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자녀와의 관계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오남과 김경신(1994)은 부모자녀관계를 가족 내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영구적인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김태현·임선영, 2004).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는 가족영역에서 중요하며,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김미령, 2008; 안정신, 2005; 윤현숙·허소영, 2007).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역할을 하는 것 뿐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 주고 얻는 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감도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이다(Ryff, Schumutte & Lee, 1996; 김미령, 2008).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전통에 의한 효(孝)문화가 강한(윤현숙·허소영, 2007) 베이비부머의 이전 세대들에서는 부모자녀관계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들과 다른 삶의 욕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가 그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3) 사회영역

#### (1) 직장생활만족도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중년들에게 직장생활만족도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기존의 직장생활만족도와 관련한 삶의 질 연구를 보면, 직장생활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Rode(2004)의 연구에서는 직장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자아존중감이라는 매개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 하지만, Andrew와 Withey(1976), Campbell 외(1976), Rice 외(1985)의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의 한 부분으로 직업 만족은 삶의 만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Rode, 2004). 이 외에도 Argyle와 Martin, (1991) Diener(1984), Feist, Bodner, Jacobs, Miels와 Tan(1995), Rice, Near와 Hunt(1980)의 연구에서 삶의 질과 직업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지지하고 있다(Feist et al., 1995).

생계유지와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한 직장생활은 우리나라 중년 성인남녀에게 중요한 영역으로 여겨질 것이다. 따라서, 중년을 노인과 비교하였을 때, 은퇴나 소득의 감소를 보이는 노인들과는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바, 본 연구에서

는 중년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년들의 직장생활만족도를 측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2)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사회적 자본(이하 Social Capital)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유된 행동과 공통된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회적 연대(Social Tie)나 사회적 분위기(Social Atmosphere)와 같이 정의되며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이나 애착수준을 예측하는 중요한 예측변인이 된다(Auh & Cook, 2009). 국내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삶의 질과 관련해 연구된 것은 전무하지만 사회적 자본 대신 사회적 지원(김미령, 2006; 김태현 외, 1998; 왕석순·서병숙, 1995), 사회관계망(왕석순·서병숙, 1995) 등의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지원, 관계망, 친구 등은 사회적 지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4) 외부영역

##### (1) 지역사회만족도 및 지방자치단체서비스 만족도

지역사회의 만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중요한 영역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전체적인 삶의 질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Auh & Cook, 2009; Bowling, 2003; Ranzijn, 2002). 삶의 질은 가족관계나 지역사회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Auh & Cook, 2009; Campbell et al., 1976; Sirgy & Conwerll 2002). 즉, "사람이 어디서 살고, 그 지역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는 개인과 가족에게 중요하다"(Auh & Cook, 2009; p 378).

Filkins 외(2000)와 Shin(1980)은 지방자치단체서비스와 지역사회 만족도가 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고(Auh & Cook, 2009), 여성연과 Cook(2009)의 지역사회 거주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물, 쓰레기 수거, 치안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서비스가 지역사회 만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광인숙(1986), 김동배(1996), 채정숙, 조희금, 박춘선, 정영숙(1996)의 연구에서 주거환경, 주거환경지표, 생활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개인의 삶의 질과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지역사회만족도 및 지방자치단체서비스만족도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며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사회만족도와 지방자치단체서비스만족도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여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의 변인도 삶의 질의 예측변인으로 판단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도시와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중년기 성인 남녀 7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인의 삶의 질 평가와 앞서 제기된 삶의 질 예측변인과의 관계파악을 위해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 대상자는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유의 할당을 시도하여 모집 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배부된 설문지 700부<sup>2)</sup> 그리고 전자메일로 11부를 전송하여 총 711부의 설문지를 배포

2) 연구자가 200부를 직접 배부하였고 나머지 500부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우편으로 우송되어 참가자들에게 배부 되었다.



하였다. 이중, 직접 배부한 설문지 700부 중 659 (94.1%)부와 전자메일로 전송한 설문지 11(100%)부가 회수되었다. 거두어들이지 못한 설문지 670부 중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 21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649부로서 총 회수율은 91.3%였다.

## 2.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모두 9문항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직업, 종교, 주택소유 유무, 거주형태, 거주지역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3. 연구도구

본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여성연과 Shelley (2004)의 Project Family Well-being & Life in Iowa(FWLI)와 여성연과 Shelley(2005)가 개발한 Iowa Family Survey(IFS)의 관련 항목들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영어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 다시 영어로 번역하여 원래의 문항과 일치도를 검증하였고 이후 20명의 다양한 교육수준의 대상자에게 사전 실시된 후에 항목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삶의 질의 측정도구 개발은 FWLI와 더불어 최성재(1986)의 연구를 참조하여 새로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삶의 질 관련 변인 및 삶의 질의 관계 파악을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를 이용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n=649)
		빈도(%)
성별	남	312(48.1)
	여	337(51.9)
연령	40-49세	379(58.4)
	50-59세	225(34.7)
	60-64세	45(6.9)
거주지역	도시	488(75.2)
	농촌	161(24.8)
교육수준	초등학교	28(4.3)
	중학교	73(11.2)
	고등학교	296(45.6)
	대학교	213(32.8)
	대학원이상	39(6.0)
직업	단순노무직	59(9.1)
	기능직	112(17.3)
	판매서비스직	153(23.6)
	사무직	133(20.5)
	관리직	41(6.3)
	전업주부	96(14.8)
	기타	55(8.5)
결혼상태	미혼	32(4.9)
	결혼	583(89.8)
	사별	11(1.7)
	이혼	9(1.4)
주택소유	기타	4(0.6)
	별거	10(1.5)
	유무	
거주형태	유	504(77.5)
	무	145(22.3)
	자가	478(73.7)
	전세	107(16.5)
	보증금 있는 월세	19(2.9)
종교	월세	19(2.9)
	기타	35(5.4)
	기독교	122(18.8)
	천주교	68(10.5)
없음	불교	239(36.8)
	기타	15(2.3)
	없음	205(31.6)

〈표 2〉 변수와 측정도구들

요 인	내 용	문항수	척도	Cronbach $\alpha$	
삶의 질	과거, 현재, 미래의 긍정적 태도 등/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을 높다고 평가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5	FWLI/4점 Likert	.763	
개인 영역	우울감 <sup>1)</sup>	미래에 대한 걱정여부, 낙망하거나 우울한 생각여부, 과거에 대한 후회 여부 /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함.	10	Russell (1998)	.825
	주관적 신체건강	신체건강정도, 친구들과 비교한 신체건강, 작년과 비교한 신체건강/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신체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3	FWLI/4점 Likert	.868
가족 영역	가족 구성원간 일상적 친밀감	가족경조사 및 친목모임참여정도, 가족여가참여정도, 의사소통정도/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구성원 간의 일상적인 친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함.	11	IFS/5점 Likert	.857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의사소통정도, 부모역할만족도, 자녀의 기대부응 정도, 자녀에 대한 만족도 /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좋고, 부모와 자녀 간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12	David (1990), 조복희& 현온강 (1994) 연구를 참고하여 개발/4점 Likert	.888
사회 영역	직장생활 만족도	직장동료관계, 직업에 대한 적성, 직업에 대한 확고한 목표, 전반적 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9	Rode (2004), 윤하나& 탁진국 (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개발/4점 Likert	.842
	사회적 자본	진정한 친구여부, 이야기 나눌 상대, 진심을 알아주는 친구여부,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느낌에 대한 여부/ 높은 점수일수록 스스로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함.	9	FWLI/4점 Likert	.817
외부 영역	지역사회 만족도	범죄의 걱정 정도, 근린생활시설접근성, 이웃과의 친밀도/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8	FWLI/4점 Likert	.756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만족도	지역사회만족도, 지방자치단체서비스 만족도, 지역청결도/ 점수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좋고,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함.	9	FWLI/4점 Likert	.845
일반적인 사항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수입, 직업, 종교, 주택소유 유무, 거주형태, 거주지역	10			

<sup>1)</sup> 역점수화 하였음.

하여 살펴보았다. 삶의 질 관련 변인인 개인영역, 가족영역, 사회영역, 더 큰 사회영역이 우리나라 중년 성인남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5.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절차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일반적 특성과 삶의 질 관련 변인들은 인지된 삶의 질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삶의 질 관련 변인들이 인지된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V. 결과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삶의 질 관련 변인, 삶의 질의 상관 관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용된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 수입, 종교, 주택소유, 거주지역과 개인영역인 우울감과 주관적 신체건강, 가족영역인 가족구성원 간의 일상적 친밀감(이하 Family Ritual)과 부모자녀관계, 사회영역인 직장생활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이하 Social Capital), 외부영역인 지역사회만족도와 지방자치단체서비스만족도 모두 17개이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 수입, 주택소유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개인영역에서 우울감은 강력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주관적 신체건강은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우울감을 덜 느끼며 스스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평가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가족영역에서 부모자녀관계와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며, 부모자녀 간 관계가 좋고 만족할수록, 가족의 모임에 자주 참여하거나 가족 간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영역에서 직장생활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이하 Social Capital)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직장생활에 만족할수록, Social Capital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삶의 질 또한 높게 평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부영역에서 지역사회만족도와 지방자치단체서비스만족도는 삶의 질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지역사회만족도와 지방자치단체서비스만족도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성향이 있었다. 우울감은 절대값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우울과 관련하는 기분을 느끼지 않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

즉, 우울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수록, 직장 동료와 관계가 좋고, 직장생활에 만족할수록, 인간관계가 원만하며 스스로 사회적 자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수록, 부모자녀 간 관계가 좋고 서로 만족할수록, 스스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가족모임에 자주참여하고 가족 간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만족하고, 근린시설 이용이 편리할수록, 지방자치단체서비스가 좋고 만족할수록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높은 성향을 보인다.

### 2.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삶의 질 예측변인이 우리나라 중년 성인남녀에게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 변수들의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값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이 5이하(1.0~1.8)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삶의 질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개인영역, 가족영역, 사회영역, 외부영역을 세분화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모델 I에서는 제일 먼저 일반적 특성을 모두 투입하였다. 투입한 일반적 특성 중에서 교육수준( $\beta=.272, p>.001$ ), 종교( $\beta=.142, p>.01$ )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6%의 설명력을 보였다. 모델 II에서는 개인영역인 우울감과 주관적 신체건강을 투입하였다. 이 두 변인 모두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영역의 우울감( $\beta=.442, p>.001$ )과 주관적 신체건강( $\beta=.248, p>.001$ ) 변인이 투입되면서 일반적 특성 중 삶의 질에 영향력을 나타냈던 종교 변인은 삶의 질에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델 III에서는 가족영역인 부모자녀관계 변인과 가족구성원 간의 일상적 친밀감 변인이 투입되었다. 두 변인 중 오로지 부모자녀관계 변인( $\beta=.307, p>.001$ )이 삶의 질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부모자녀관계 변인이 투입되면서 총 49.2%의 설명력을 보여 개인영역을 투입하였을 때보다 35.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모델 IV에서는 사회영역의 변인인 사회적 자본 변인과 직장생활만족도 변인이 투입되었는데 사회적 자본 변인( $\beta=.216, p>.001$ ), 직장생활만족도 변인( $\beta=.120, p>.01$ ) 모두 삶의 질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자본 변인은 우울감 다음으로 삶의 질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설명력은 모델 III보다

4.9% 증가하여 54.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모델 V에서는 외부영역인 지역사회만족도변인과 지방정부서비스만족도변인을 투입시켰는데, 두 변인 중 지방정부서비스만족도변인( $\beta=.131, p>.01$ )만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사회영역이 투입된 모델 IV 보다 1.4% 증가한 총 55.5%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우울을 느끼는 경험이 적을수록,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가질수록, 조사대상자 스스로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와 자녀 간 관계가 좋을수록, 지방자치단체서비스에 만족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생활에 만족하고 직장생활에 성공할수록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울감이 삶의 질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인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다른 개인영역 변인인 주관적 신체건강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이 곧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족영역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가족구성원 간의 일상적 친밀감보다 부모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조사대상자들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영역에서 사회적 자본은 우울감 다음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생활만족도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져 중년들의 사회적 영역 또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부영역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객관적인 변인만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영역, 가족영역, 사회영역, 외부영역이 총체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일반적 특성과 삶의 질 관련 변인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																		
2	.060	1																	
3	-.130***	-.052	1																
4	.317***	-.035	-.316***	1															
5	.107**	-.207***	.062	.134***	1														
6	.116**	-.331***	-.551	.226***	.238***	1													
7	.180**	.003	-.024	.077*	-.017	.110*	1												
8	.073	.096*	.189***	-.040	-.001	-.04	.002	1											
9	.094*	.002	.045***	.030	.033	.162***	.211***	.097*	1										
10	.056	.019	-.200***	.221***	-.012	.072	.055	-.045	.035	1									
11	-.587***	.002	.071	-.194***	-.152***	-.113**	-.112**	-.118**	-.066	-.047	1								
12	.470***	-.042	-.081*	.195***	.106**	.064	.069	.039	.050	.021	-.394***	1							
13	.423***	.082*	-.057	.211***	.111**	.089*	.232***	.275***	.200***	.069	-.375***	.220***	1						
14	.513***	.095*	-.008	.069	.053	.045	.152***	.150***	.090*	-.018	-.345***	.209***	.529***	1					
15	.534***	.059	-.051	.331***	.144***	.138***	.145***	.127**	.084	.131**	-.408***	.345***	.461***	.431***	1				
16	.524***	.012	-.079*	.154***	.125**	.038	.097*	.104***	.061	.068	-.486***	.296***	.421***	.421***	.449***	1			
17	.379***	.018	.007	.090*	.058	-.014	.062	.076	.152***	.108***	-.248***	.221***	.375***	.337***	.381***	.344***	1		
18	.341***	-.005	-.042	.165***	.068	.021	.050	.077	.075	.143***	-.223***	.191***	.318**	.306***	.309***	.225***	.573***	1	

Note. 1=삶의 질, 2=성별, 3=연령, 4=교육수준, 5=직업, 6=수입, 7=결혼상태, 8=종교, 9=주택소유, 10=거주지역, 11=우울감, 12=주관적신체건강, 13=가족간의 일상적 친밀감, 14=부모자녀관계, 15=직장생활만족도, 16=사회적자본, 17=지역사회만족도, 18=지방정부서비스만족도

\*p<.05, \*\*p<.01, \*\*\*p<.001

(표 4) 삶의 질에 위계적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Model V
	$\beta$				
교육수준	.272***	.159***	.164***	.125***	.117***
종교	.142***	.040	-.101	-0.17	-.019
주관적신체건강		.248***	.223***	.019***	.183***
우울감		-.442***	-.342***	-.251***	-.246***
부모자녀관계			.307***	.208***	.180***
Social Capital				.216***	.207***
직장생활만족도				.120***	.102*
지방정부서비스 만족도					.131**
F	8.58***	34.33***	58.50***	7.76**	12.20**
R <sup>2</sup>	.096	.141	.492	.541	.555
△R <sup>2</sup>	.096	.045	.351	.049	.014

\*p<.05, \*\*p<.01, \*\*\*p<.001

## V. 결론 및 제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단일 차원의 영역이 아닌 다양하고 총체적인 차원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일반적 특성 변인과 삶의 질 관련 변인들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일반적 특성과 삶의 질 관련 변인들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각 요인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삶의 질 관련 변인이 우리나라 중년 성인남녀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 삶의 질 관련 변인,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변인 간의 상관성이 입증되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관리직일수록, 결혼한 상태일수록, 자가주택을 소유할수록, 우울감이 낮을수록, 주관적으로 신체가 건강하다고 평가할수록, 부모자녀관계

가 좋을수록, 가족의 모임에 자주 참여하고 가족 간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직장생활에 만족할수록, 사회적 자본이 풍부할수록, 지역사회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서비스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이 각 변인들이 조사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밀접하게 관련이 된 변인으로 서로 관련이 있음이 파악되었다.

둘째, 삶의 질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삶의 질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삶의 질 관련 변인들을 위계적으로 투입한 모델을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이 투입된 모형에서는 일반적 특성변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만 삶의 질 관련 변인들이 투입되면서 일반적 특성 변인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우울을 느끼는 경향이 적을수록, 부모와 자녀 간 관계가 좋을수록,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신체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지방자치단체서비스에

만족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생활에 만족할수록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영역에서는 주관적 신체건강과 우울감이 모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감이 낮을수록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한다는 연구들(Demura & Sato, 2003; 김기정·표갑수, 2008; 박재홍·정지홍, 2010; 윤명숙·조혜정, 2007; 이금자·이현지, 2008; 조준배, 2009)에 의해 결과가 지지되었다. 주관적 신체건강 역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Campbell, 1976; 윤명숙·조혜정, 2007; 이동호, 2010)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Maddox와 Eidorfer(1962), Streib(1956), Kutner(1956)와 Shuchman(1958)도 주관적 건강이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어(Palmore & Luikart, 1972), 스스로가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반면, 베이비부머는 과거세대와는 다른 삶의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여전히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는 정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나 예상했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관계와 만족도가 삶의 질에 주요 변인이라 제시한 석말숙(2004), 윤현숙과 허소영(2007), 임주영과 전귀연(2003), 송지은과 Marks(2006)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또한, 지역사회만족도 및 지방자치단체서비스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하였던 어성연과 Cook(2009), 이경욱(2008)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곧 사회생활 공간이 다른 것 못지않게 중요하고 개인의 삶의 질에 있어 중요성이 달라졌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개인과 관련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는 총체적 삶의 질을 강조하

고 있는 Diener(1995), Diener와 Diener(1995), Schallock(2000), 고승덕과 조숙행(1997), 김태현 외(1998), 박미석(1996), 한석태(2008), 한형수(2008)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영역의 변인들을 통제한 가운데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 부모자녀관계, 사회적 환경, 외부환경 등이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즉, 다양한 영역의 변수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년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태학적 이론으로 접근함으로써 기존 연구와는 다른 시사점과 의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이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서울 및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등에 거주하는 만 40대부터 64세 성인 남녀를 편의표집 하여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과 삶의 질 관련 변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자녀관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혀냈지만, 배우자만족도나 결혼만족도 등 배우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다섯 가지로 제한하여 살펴보았지만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더 살피고,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혀내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삶의 질 관련 변인인 일반적 특성, 개인영역, 가족영역, 사회영역, 외부영역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결과를 보인 만큼 중년기가 아닌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급증할 노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노력은 개인차원에서 지역사회차원까지 확장하여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년 성인남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영역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영역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가족에서 지역사회까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다양하면서도 총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고승덕·조숙행(1997).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인 추출. 한국노년학, 17(2), 17-38.
- 2) 광인숙(1986). 생활의 측정을 위한 주거환경지표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161-182.
- 3) 김기정·표갑수(2008). 재가노인의 우울감 유발 요인과 완화요인.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39, 111-144.
- 4) 김동배(1996). 노인주택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사회복지연구, 3, 357-376.
- 5) 김명소·성은현·김혜원(1999). 한국 기혼여성(아줌마)들의 성격 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 여성, 4(1), 41-55.
- 6) 김미령(2006).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197-222.
- 7) 김미령(2008). 노인의 부양의무기대, 부모역할 만족 및 자녀결속력이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4, 161-188.
- 8) 김영범·박준식(2006). 노인의 사회관계망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비혈연집단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2), 261-273.
- 9) 김정연·이석구·이성국(2010). 노인에서 건강행태, 건강수준,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30(2), 471-484.
- 10) 김주희·김정현(1998). 노인우울척도를 이용한 노인의 우울성향과 근골격계 만성동통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3), 90-102.
- 11)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 12) 김태현·임선영(2004). 가족이념, 생활교류가 부모자녀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년세대와 성인세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85-109.
- 13) 김혜령(2007). 노인의 삶의 질. 간호학 탐구, 16(2), 39-51.
- 14) 노병일·모선희(2007).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차원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1), 53-69.
- 15) 박미석(1996).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9-33.
- 16) 박옥임·김정숙·정영혜(2004). 농촌지역 중년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6(4), 89-100.
- 17) 박은숙·김순자·김소인·전영자·이평숙·김행자 외(1998). 노인의건강증진행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28(3), 638-649.
- 18) 박재홍·정지홍(2010). 독거노인의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체음주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47, 309-330.
- 19) 박형숙·김상금·조규영(2003). 일지역 중년여성의 갱년기증상, 우울,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9(4), 479-488.
- 20) 서병숙·이 현(1995).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 생활만족도: 도시와 농촌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3(3), 43-57.
- 21) 석말숙(2004).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생태 체계적 접근: 지역사회거주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26, 237-261.
  - 22) 송지은·Marks, N. F.(2006).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국 중년자녀의 분석. 한국노년학, 26(3), 581-599.
  - 23) 신경림·양진향(2003). 농촌 중년여성의 삶의 질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3(7), 999-1007.
  - 24) 안정신(2005). 중노년기 미국성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전생애 발달과정의 부모자녀관계와 생산감 발달의 영향. 한국노년학, 25(2), 245-266.
  - 25) 안현선·김효민·안진경·김양희(2009).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와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137-155.
  - 26) 어성연(2005). 삶의 질: 실과 교과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관점. 실과교육학회지, 18, 205-219.
  - 27) 윤명숙·조혜정(2007). 도시 및 농촌지역노인의 삶의 질, 문제유증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 515-523.
  - 28) 윤진 (1983). 일상생활에서의 심리학의 역할: 부부와 자녀 및 노부모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1, 73-91.
  - 29) 윤하나·탁진국(2006).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차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9(3), 325-347.
  - 30) 윤현숙·허소영(2007). 노인의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매개효과 및 중재효과. 한국노년학, 27(3), 649-666.
  - 31) 이경욱(2008). 서울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42, 55-78.
  - 32) 이근홍(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공동체.
  - 33) 이금자·이현지(2008). 노인 코호트에 따른 삶의 질 결정 요인.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41, 159-182
  - 34) 이기숙(2003). 가족의례: 한국인의 죽음의례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 175-208.
  - 35) 이기영(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인간생태학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35-59.
  - 36) 이동호(2010).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1), 93-108.
  - 37) 이승미(2002). 한국 노인의 사회계층별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원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3), 135-157.
  - 38) 이영희(2002). 중년남성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 32(4), 539-549.
  - 39) 임주영·전귀연(2003). 노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8(1), 127-144.
  - 40) 전영자·박경란(2006). 노인의 종교성,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5(2), 239-249.
  - 41) 정현숙(2007). 가족생활교육. 서울:신정
  - 42) 조복희·현온강(1994).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5), 97-108.
  - 43) 조준배(2009). 경제적 스트레스요인이 부부갈등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과 자기생활만족도 그리고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7, 153-174.
  - 44) 채정숙·조희금·박충선·정영숙(1996). 경산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대책 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4(5), 13-27.
  - 45)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척도 개발에

-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9, 233-258.
- 46) 최연희(2004).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건강증진 행위와 삶의 질.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6, 87-100.
- 47) 최혜지·이영분(2006). 구조적 차원성 탐색을 통한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의 재발견: 최성재의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28(3), 27-49.
- 48) 한석태(2008). 노인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42(3), 441-461.
- 49) 한형수(2004). 한국사회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9, 113-142.
- 50) 한형수(2008). 노인의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만족도에 관한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39, 347-372.
- 51) 황미구·김은주(2008). 노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한국노년학, 28(4), 865-885.
- 52)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Developing Measures of Perceived Life Quality: Results from Several National Surve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 1-26.
- 53) Auh, S., & Cook, C. C. (2009). Quality of Community Life Among Rural Residents: An integrated Mod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94, 377-389.
- 54) Bennett, L. A., Wolin, S. J., Reiss, D., & Teitelbaum, M. A. (1987). Couple at Risk for Transmission of Alcoholism : Protective Influencet. *Family Process*, 26(1), 111-129.
- 55) Brief, A. P., Butcher, A. H., George, J. M., & Link, K. E. (1993).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4), 646-653.
- 56) Bubolz, M. M., Eicher, J. B., Evers, S. J., & Sontag, M. S. (1980). A Human Ecological Approach to Quality of Life: Conceptual Framework and Results of a Preliminary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7, 103-136.
- 57)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 58) Costa, P. T., & McCrae, R. R. (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4), 668-678.
- 59) Cummins, R. A., Eckersley, R., Pallant, J., Vugt, J. V., & Misajon, R. (2003). Developing a National Index of Subjective Wellbeing: The 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Social Indicators Research*, 64, 159-190.
- 60) David, R. L., Anne, F. M. (1990).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Communication Research*, 17(4), 523-544.
- 61)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62) Diener, E.(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63) Diener, E. (1995). A Value Based Index for Measuring National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6, 107-127.
- 64)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53-663.
- 65) Diener, E., & Suh, E.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 189-216.
- 66) Feist, G. J., Bodner, T. E., Jacobs, J. F., & Tan, V. (1995). Intergrating Top-Down and Bottom-Up Structural Models of Subjective Well-Be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1), 138-150.
- 67) Jurakić, D., Pedišić, Ž., Greblo Z. (2010). Physical Activity in Different Domain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 Population-Based Study. *Qual Life Res*, 19, 1303-1309.
- 68) Kreitler, S., & Kreitler, M. M. (2006). Multidimensional Quality of Life: A New Measure of Quality of Life in Adul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6, 5-33.
- 69) Meadow, H. L., Mentzer, D. R., Rahtz, D. R., & Sirgy, M. J. (1992). A Life Satisfaction Measure Based on Judgment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26(1), 23-59.
- 70) Murata, C., Kondo, K., Hirai, H., Ichida, Y., & Ojima, T. (2008).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d Socio-Economic Status Among Community-Dwelling Elderly in Japan: The Aichi Gerontological Evaluation Study (AGES). *Health & Place*, 406-414.
- 71) Okun, M. A., Olding, R. W., & Cohn, C. M. G. (1990). A Meta-Analysis of Subjective Well-Being Interventions Among Elders. *Psychological Bulletin*, 108(2), 257-266.
- 72) Palmore, E., & Luikart, C. (1972). Health and Social Factor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13, 68-81.
- 73) Rode, J. C. (2004).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revisited: A longitudinal test of and integrated model. *Human Relations*, 57, 1205-1230.
- 74) Ryff, C. D., Heidrich, S. M. (1997). Experience and Well-being: Explorations on Domains of Life and How They Matte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2), 193-206.
- 75) Smith, T. W. (1979). Happiness: Time Trends, Seasona; Variations, Intersurvey Differences, and Other Mysteri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2(1), 18-30
- 76) Thomas, R. M. (1996). *Comparing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C.A: Brooks/Cole.
- 77) Zautra, A. J. (1983). Social Resources and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3), 275-290.
- 78) Zautra, A. J., & Reich, J. W. (1983). Life Events and Perceptions of Life Quality: Developments in a Two-Factor Approac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121-132.
- 79) 통계청. (2005). Retrieved on March 28, 2011, available from [http://www.census.go.kr/hcensus/ui/html/data/data\\_060\\_010.jsp?q\\_menu=4&q\\_sub=5](http://www.census.go.kr/hcensus/ui/html/data/data_060_010.jsp?q_menu=4&q_sub=5)
- 80) United State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Data Base. (2011, February, 23). Retrieved April. 14, 2011, available from <http://www.census.gov/Ipc/www/Idb/country.php>

- 투 고 일 : 2011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1년 10월 7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11월 15일